새로나온 책

▲동중공부=정중선(靜中禪)과 동중선(動中禪)의 참선방법 중 동중선 수행법에 관해 설명한 책. 참자기를 찾는 방법과 공부의 선결요건, 좌선의 방법 등이 제시돼 있다. 부제는 '재가자를 위한 마음공부법'. 허운스님의 참선법문도 실려있다. 저자는 천강스님(길상선원 선원장)이며, 책을 원하는 불자들에게는 법보시한다. (02)3672-5945

▲마음에 내리는 꽃비=93년 등단 이후 불교적 이미지와 소재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드러내 보였던 시인이자 다인(茶人)인 한지혜씨의 신작 시집. 이번 시집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불교적 자기구원과 구도정신을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차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 가는 모습을 그린 연작시 '상천재에 뜨는 달'은 시인의 불심이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한누리 미디어, 5천원〉

▲조선왕조 충의열전=사육신과 김종서, 유성원 등 충직한 성품으로 절개를 지킨 조선시대 충신들의 기록을 더듬은 역사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과정과 단종복위운동을 둘러싼 조선 초기 정치사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며, 이들의 충의(忠義)를 그렸다. 저자 최완수씨(간송미술관 역사실장)의 역사의 이면 추적이 돋보인다. 〈돌베개, 1만원〉

▲신 토정비결=한자문화의 영향으로 어렵게 구성돼 있는 토정비결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 하지만 토정비결은 운명의 노예가 아닌 미래에 대비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한국 역술인협회 중앙회장 백 광씨. 〈관음출판사, 7천원〉

승병활동은 나라사랑 보살행

노경식 소설 '사명대사' 상·중·하

이야기 전개과정 스님의 인간미 '물씬' 주제는 국난극복 의지

조선불교의 큰 별로, 나라의 평안과 무명중생의 제도를 위해 한 몸을 살랐던 사명당 유정스님을 소설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노경식씨(61)가 펴낸 〈사명대사〉(전3권, 문원북 刊)는 사명스님의 기록과 행적들을 정리해 소설화 한 작품이다. 특히 서산대사를 비롯해 영규 처영 의암 경언 인오 해안 등 사명대사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스님들의 세세한 행적까지도 추적함으로써 승병활동을 총정리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또 임진왜란이 당쟁에 의해 발발했다는 식민지사관에서 탈피,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 의지를 스님들을 통해 투영시키면서 민족주의적 사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소설의 특징이다.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된 〈사명대사〉의 이야기는 지리산 화엄사의 한 승방 안에서 혜안 노스님과 혜구스님이 마주 앉아 30년전 열반에 든 사명대사를 회상하면서 시작된다. 선조 25년 금강산 유점사에 왜군이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명스님은 먹물장삼에 주장자만 든 채 왜장을 만나 글로써 담판을 짓고 피로 얼룩질 뻔했던 절과 스님들을 구해낸다. 이 일로 국난이 터진 사실을 알게 된 스님은 서산대사의 격려문 아래 승군을 모집하고 봉기하기에 이른다.

세 차례나 적진으로 간 스님은 대담함과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보였으며, 정유재란을 맞아서도 다시 한 번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며 왜군이 인질로 잡아간 3천5백여 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환하는 공적을 세운다.

이야기는 사건 위주로 빠르게 진행돼 읽는 지루함을 잊게 한다. 승병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심처럼 맑았던 스님의 진면목도 그대로 드러난다. 스님이 남겼던 많은 선시들이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가 하면, 선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고뇌와 갈등은 스님의 따뜻한 인간미와 깊은 불심을 읽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스님의 인간미와 불심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심성과 불성을 깨우며 '이심전심'의 경지로 몰아간다.

한편 저자는 이야기 내내 사명대사 등 승병들의 활동이 보살사상의 구현이요 우국충정의 발로임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오늘날에 그와 같은 민족적 기개와 호연지기가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뽕나무 열매를 먹는 새는 그 소리가 고와진다. 그렇지만 향을 훔치면서 콧구멍을 막고, 머리에 난 부스럼을 가리켜서 뿔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는가…."

처음 사명대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스님의 '행적'을 적었던 혜안 노스님의 이 글이 이야기의 끝을 장식한다. 저자는 자신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3년간이나 각종 사료를 뒤지며, 사명대사의 흔적을 좇았다. "역사는 살아 있는 교훈이다. 사명대사는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훌륭한 스님이었음을 이 책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며 발간의미를 말했다. 각 권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축역 한국대장경' 12권 완간

한국적인 언어와 습성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경전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도록 한 〈축역 한국대장경〉이 완간됐다. 〈161호 8면 참조〉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 부설 불교정신문화원은 지난 17일 〈아함부1〉〈반야부1〉〈반야부2〉〈논집부2〉 등 〈축역 한국대장경〉 4권을 펴냈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 4권씩 출간된 〈축역 한국대장경〉은 모두 12권으로 발간이 마무리됐다.

경·율·논·선·밀교 등으로 분류된 〈축역 한국대장경〉은 〈아함부〉〈방등부〉〈반야부1〉〈반야부2〉〈법화·열반부〉〈화엄부〉 등 6권으로 경부를 정리하고, 율부는 〈계율부〉 1권으로 축약했다. 논부와 선부는 〈논집부1〉〈논집부2〉〈조사어록1〉〈조사어록2〉 등 각 2권으로, 밀교부는 〈밀교부〉로 발간됐다.

이번에 나온 〈아함부1〉은 〈장아함경〉〈중아함경〉〈증일아함경〉〈잡아함경〉 등에 수록된 1천4백81개 경전을 축약해 놓았다. 〈반야부1〉은 현장법사가 번역한 〈대반야경〉으로도 불리는 〈600부 반야경〉 가운데 제1권부터 574권까지를, 〈반야부2〉는 574권부터 600권까지를 정리했다. 또 〈논집부2〉는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유가사지론' '인명입정리론' '보왕삼매론' '마하지관'

'천태사교의' 등 불교논리학의 핵심과 불교학의 기초가 되는 논서들을 실었다.

한정섭 이사장은 "〈축역 한국대장경〉은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전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 권 5만원.

한명우 기자

'마음의 새옷' 입는 구도열

영운스님 시집 '헌옷을 벗다'

'산촌의 새벽을 일으키고 새들의 잠을 깨우며/흙이나 뒤적이고 살아가는 산골 중이 되었답니다'('서시'의 일부)

깊은 산골 청량한 물과 공기를 마신듯한 상쾌함과 소박함. 영운스님(경주 복원사 주지)의 시집 〈헌 옷을 벗다〉(뿌리 刊)는 바로 그런 느낌이다. 고뇌와 방황하던 삶의 순간순간들. 그것들은 한 편 한 편의 시에 담기면서 염화미소 속에 녹아 내린다. 아! 옷을 벗는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시 '헌옷을 벗다'에서 스님은 바보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의 헌 옷을 벗길 수 없으리라. 부처님과 불법을 받드는 일은 그렇게 '마음의 새 옷'을 입는 일이란다.

시적 기교가 다소 설익은 듯한 느낌은 스님의 천성적인 소박함으로 메워진다. 풍부한 체험과 시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불법을 향한 끝없는 구도열이 1백쪽 시집에 넘쳐난다.

스님은 한국불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값 5천원.

20년 포교경험 '책으로'

이동성법사 '현장포교의 방법과 실제'

〈현장포교의 방법과 실제〉(정우서적 刊)는 다양한 현장 포교방법과 경험사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포교 지침서다. 20년간 포교일선에서 활동해 온 이동성법사(제천 장엄사 포교원장)가 현장에 임하는 스님과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책.

현장포교는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포교원력과 수행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이 전하는 핵심내용. 세부적으로는 법사의 원력과 자세, 법사의 장애극복, 포교원 개원과 운영, 포교대상에 대한 이해 등이 1장에서 4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심성계발전문지도자인 저자가 개발한 불성개발훈련법을 비롯해 실질적인 포교방법이론, 실제방법과 실습, 의식포교 등 다양한 포교방법과 실제 사례가 5장에서 제시돼 있으며, 6장에서는 저자의 20년 현장포교경험사례가 소개돼 있다.

체계적인 포교방법을 원하는 법사들에게 유용한 안내서다. 값 7천원.

화제의 책

삶이란 뭐꼬 만용스님 지음

지혜와 용기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 삶은 바로 그런 길. 그렇지만 망상과 번뇌, 절망과 죽음도 그 길 위에 서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한다. '삶이란 뭐꼬'.

삶은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한 것. 만용스님은 답한다. 그것들을 찾아 나서라고. 누군가가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찾을 수 밖에. 이 책은 삶과 사랑을 말한 수필집이다. 경전 이야기는 물론 갖가지 일화 등을 인용하며 삶의 근원과 불법의 깊이를 들여다 본다. 그리고 스님은 말한다. "버리는 방법만을 찾지 말라. 인간은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와 같은 존재.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는 삶의 법칙을 배우라"고. 만용스님은 서울 삼봉정사 주지. 〈빛샘, 7천원〉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후동 지음

자기 바로 보려하면 그것이 선이다

경봉스님은 "무릇 선이란 마음 가운데 망상을 쉬지 않고 진성(眞性)을 나타내는 공부"라고 말했다. 자기를 바로 보려 한다면 그것이 곧 선이다. 선은 일상의 어디에나 있다.

한국 문인협회 회원인 후동 시인이 쓴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는 선의 향기를 담아낸 책이다. 달마 경봉 진제 성철스님 등 선사들의 선문답과 경전, 선서는 물론 장자 등의 고전과 〈어린왕자〉 등 외서(外書) 등에서 선향(禪香)이 가득 밴 103편의 짧은 글들을 뽑아 실었다.

선문(禪門)을 노크하는 초심자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본래면목을 찾아 나선 신심깊은 불자들 모두에게 도반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여래,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2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7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 현 종	대원미디어
8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9	참선교육	현 담	조계종수선회
10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구입문의:(02)737-0695

중앙불교합창단 단원모집

지난 1994년 3월에 창단된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중앙불교합창단은 뿌리 깊은 불교음악 연구와
새로운 불교음악 창달 및 보급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불교합창단에서는 그 동안 끊어졌던 불교음악의
시대적 공백을 이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불교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민족음악의 터전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국악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강습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적 소양을 제고하고
종단 행사 참여는 물론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을 통해 각종 무대에서 보다 향상된 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 ● ●

- 분 야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각 파트 30명씩)
- 자 격 : 음악 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
- 서 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사진(반명함) 2매
- 접 수 처 :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산 24-17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마감 : 1999년 2월 28일 도착(우편) 및 접수분까지
- 오 디 션 :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사곡의 노래(지정곡), 자유곡(1곡)
- 발 표 : 1999년 3월 10일까지 개별통보
- 문의전화 : (02)896-2091/2 (중앙국악관현악단)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
이사장 박 범 훈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덕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명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협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슴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겨울 선 수련회
♣ 기간 : 1999년 1월 1일(日) - 20일(水), 3박 4일, 수련비 5만원
♣ 장소 : 성북동 길상사설법전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1999년도 1박 2일 주말 수련회 계획
(수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1차	1월23일(토)~2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2차	1월30일(토)~3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3차	2월 6일(토)~ 7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4차	2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2월20일(토)~2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6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 입재 :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회향 : 일요일 오후 8시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②생년월일, 성별③주소④연락처 전화번호⑤직업⑥수련회 경험유무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해탈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